

‘석유화학산업 불황’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 ‘총력’

市 행정지원단 본격 가동...부서별 사업 발굴·정부 지원책 조력 여수시의회 정부 발표 환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여수시가 최근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발맞춰 행정 지원단 운영을 본격 가동하며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로 침체 장기화 전망에

따라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의 실정을 공유하고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부서별 임무 부여를 위한 것으로, 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책과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응해 업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부서별 추진 사업을 발굴, 정부 지원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최근 산단의 대기업과 협력·의존 관계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휴·폐업 속출 등에 대한 조치로 범부서 행정력을 결집한 행정지원단 운영을 본격화했다.

행정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해 ▲산단 지원 및 개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기업 건의 및 규제 해소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부서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건의를 구체화하고,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사업 및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시의회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환

영의 입장을 밝히며, 석유화학산업 위기와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정부 대책 발표는 지난 6월14일 시의회의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에 대한 화답”이라며 “구조적 침체 위기에 빠진 여수산단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불황 원인 진단은 정확한 판단”이라며 “공급과

잉 NCC설비 합리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및 매각 촉진 제도 정비가 시급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고부가·친환경 제품 생산 등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 때를 놓치지 말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시의회는 정부와 전남도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7년 결실’ 장성군,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토부 공모 지역특화 부문 선정...사업비 270억 투입 목재거리 역사성 결합...축령산 ‘편백큰푸름센터’ 건립

장성군이 7년간의 줄기찬 도전 끝에 대창지구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군민 숙원을 이뤘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중 장성군이 포함된 12개 지역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역특화 부문에 선정된 군은 호남권 유일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국·도·군비 등 2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성을 대창지구 일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다.

주요 사업은 ▲거점시설 조성 ▲정수환형 재생으로 나뉘며,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거점시설 조성의 핵심은 장성군의 대표 산림자원인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편백큰푸름센터’의 건립이다. 이 시설에는 로컬레스토랑, 생태교육장, 편백체험실, 큰푸름편백물, 액티비티가든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대창1공영주차장 인근(장성을 영천리 900-4 부근)에 조성된다. 이 지역은 과거 전담제재소를 중심으로 목재산업이 번성했던 곳으로, 역

사적 의미를 더한다. 정주환경 재생사업은 영천로 일부 구간을 평탄화해 보행 친화적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편백 디자인을 적용한 불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횡단 보도에는 과속방지턱과 보행자용 횡단 보도를 결합한 ‘고인식’ 설계를 도입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과 북장성IC 개통에 이어 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또 한 번 군민 숙원을 해결해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될 수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령산 자유의 숲과 목재거리의 역사성을 결합해 장성을 목재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올해 ‘농정업무’ 탁월 성과 입증

道 주관 농정평가서 축산시책·친환경농업 등 4건 수상

담양군이 올해 전남도가 주관 각종 농정 평가에서 4건을 수상하며 농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진>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주관 각종 농업분야 평가에서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축산시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농식품유통평가 우수상 등 다방면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농업농촌 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식량·원예작물 생산 추진 등 6개 분야 33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는 농정업무 평가에서 담양군은 전반적인 농업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우수상을 받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민선 8기 이후 집중적인 농업예산 투자와 더불어 체계적인

농정 추진과 농업인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수상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담양군의 친환경 인증 면적 확

대와 품목 다각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이병노 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 호우, 병충해,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와 군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 기자



보성 2024 빛낸 시책 ‘종합청렴도 1등급’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울포항 국가어항 예비대상 선정 뒤이어

보성군이 2024년 올해의 시책 베스트 10을 최종 선정한 가운데 2년 연속 대한민국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이 대상을 차지했다. 29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2024년 한 해 (12월12일 기준) 동안 군이 추진한 주요 시책과 성과 중 각 부서에 추천받은 24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차로 공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와 2차로 부서장 및 읍면장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에는 ‘대한민국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이 선정됐다. 보성군은 전국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으며, 이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일군 신뢰의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최우수 시책으로는 ▲2024년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 사업 추진 ▲울포항 국가어항 예비대상 선정이 이름을 올렸다.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 사업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군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생활 안전을 강화한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포항 국가어항 예비대상 선정은 국가어항 지정을 목표로 한 10년의 지속적인 노력이 빛을 발하며, 보성군의 해양 발전 가능성을 확대한 시책으로 주목받았다. /보성=임병연 기자

이밖에 선정된 우수·장려시책은 ▲2년 연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 (721억원) ▲광주전남 최초 관내 농공단지 전체 공모사업 선정! 농공단지 산단환경 조성 (189억원)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 (410억원)·발교문화복합센터 사업 (420억원) 등이 선정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800여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와 같은 성과가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보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올해의 시책 베스트 10 선정 이후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호남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구북구 화순군수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2024년 출생아 첫째부터 1인당 8천260만원 대폭 지원

출생기분수당 신설...24시 어린이집 등 가족 지원책도

화순군이 출생기분수당을 신설해 2024년 1월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 1인당 8천260만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첫째 아이에게 3천940만원, 넷째 아이 이상 생부터는 출생기분수당이 추가돼 첫째 아이는 8천26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9천330만원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화순군은 ▲출산양육지원금 (첫째·둘째 23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1천15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

만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셋째 이상) 50만원 ▲부모 급여 월 7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임산부 영양제 ▲출생축하용품 ▲영유아 영양제 ▲임부 건강관리용품 ▲출산준비용품 등 약 34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출생기분수당이 더해진다. 2024년 1월1일 이후 태어나 화순군에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천320만원을 지원한다. 단, 부모와 아동이 다시·도로 전출하지 않

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출장, 질병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양육을 맡길 수 있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가족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현금성 지원은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지만 반드시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며 “100년 후 미래를 위해 교육과 교육의 책임을 군이 함께 나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 산수유, 가공산업 새 지평 열다

가능성 식초 제품 총 5종 개발...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

구례군은 29일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를 활용한 식초 상품화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에 지리산과하나도기산 수유마을영농조합법인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국산 발효 균종을 활용해 산수유 발사믹 식초와 산수유 화이트 식초 등 총 5종의 가능성 식초 제품들이 개발돼 지

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다. 이번 성과는 산수유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봉감, 우리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로도 가능성을 확장하며,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승호 산수유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사진)는 “산수유의 가능성을 발효 식초로 완성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발효 기술과 치유농업을 접목해 구례가 치유와 건



강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상품 개발을 넘어 지역 농산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발효식품 산업과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곡성군, 토란·멜론·가루쌀 특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곡성군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최종 선정,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곡성군은 지역 대표 자원인 토란, 멜론, 가루쌀을

활용한 농식품 기업 육성 및 연관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사진> 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 스마트팜 허브센터와 연계한 스마트팜 산업 지원, 청년 창업·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 식품 기업과 청년창업자 지원, 은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기업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곡성농시



품산업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과 기업 육성 방안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